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에서 현지 생산된 아이오닉 5 차량에 '정의선'이라고 기념서명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

아빠, 질문 있어요 트럼프 할아버지는 왜 현대차에 '엄지척' 했나요

Cover Story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31조원 들여 미국 공장 더 짓는 이유

여러분, '31조원'이 얼마나 큰돈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햄버거로 따지면 수십억 개를 살 수 있고 5만원권 지폐로 차곡차곡 쌓으면 비행기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탑을 만들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얼마 전, 한 국내 기업이 31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해 관심이 쏠렸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그룹인데요. 기사를 읽고 "왜 한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이 저 멀리 미국에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3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어요. 관세란 한 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매기는 세금을 말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안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관세를 안 내도 된다"며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에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압박에 발빠르게 대응한 셈이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인기 모델인 '싼타페'를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해볼게요.

미국이 여기서 25% 관세를 붙이면, 차 가격이 훨씬

비싸질 거예요. 그러면 미국 소비자들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싼타페 대신에 관세를 내지 않아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미국산 자동차를 살 가능성이 커져요. 결국 싼 타페 판매량이 줄어들고, 현대자동차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면 관세 부담을 덜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하게, 더 많은 차를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53만5616대 vs 4만7190대.'

2024년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차량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차량 수인데요.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죠?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자동차예요. 미국을 상대로 한 전체 수출 금액 중 자동차 수출 비중이 27.2%를 차지할 정도니까요. 그러니 미국이 높은 관세를 매기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아주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운다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될 거예요. "한 나라의 정책이 이렇게 기업들의 움직임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점을 떠올리며 뉴스를 읽어보세요. 세금 부담을 피하거나 현지 시장경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의사 결정들을 이해하면 경제 흐름이 더 쉽고 흥미롭게 다가올 거예요.

김혜순 기자



유럽에서 돼지가 부활했다고?

<PIGS>



세계는 지금
World News



2008년 파산한 미국 투자회사 리먼브러더스. 직원들이 회사 간판을 내리는 모습. 매경DB

올해 유럽에서 ‘돼지가 부활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과거 유럽을 경제위기로 몰아넣었던 방만한 나라의 대명사인 포르투갈(P), 이탈리아(I), 그리스(G), 스페인(S·네 나라의 이니셜을 합쳐 PIGS)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예요. 반면 경제 강국이었던 독일과 프랑스는 최근 상황이 좋지 않죠. 영국 언론 파이낸셜타임스는 ‘역전된 운명’이라는 표현까지 썼을 정도예요. 세계 우수 언론들이 PIGS의 부활을 분석하고 나선 이유기도 하죠.

왜 돼지라고 부르는 거야?

2008년 9월 미국에 엄청난 경제위기가 닥쳤어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부동산 대출을 해줬다가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거였죠. 금융회사 부도의 파장은 일반 회사와는 차원이 달라요. 세계 곳곳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세계 최고 금융대국인 미국, 그곳에서 가장 큰 금융회사인 리먼브러더스의 부도는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같은 바이러스를 맞아도 몸이 허약한 사람이 더 아픈 것처럼 국가 빛이 과하게 많은 나라는 더 큰 위기를 겪죠. 경제가 안 좋을 때 투자자들은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요. 조금 부실하다 싶은 나라들에는 투자하지 않으려 해요.

그때 딱 걸려든 나라가 PIGS 국가들이었어요. 국가 부채가 많은 데다 관광업 외에는 별다른 산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그리스 정부는 재정이 건전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하기도 했어요. PIGS 국가들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졌고 이들 국가는 돈을 조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어요. 결국 유럽연합이나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에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을 게으르고 먹는 것만 좋아하는 ‘돼지들(PIGS)’이라고 부르게 된 배경이에요.

다시 날아오르는 PIGS

18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반전됐어요. 최근 유럽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가 모두 괜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예요. 스페인은 지난해 3.2%, 그리스는 2.2%, 포르투갈은 1.9% 성장했어요. 유럽 국가들 평균 0.7%를 훌쩍 넘어선 거였어요. 이탈리아도 0.7% 성장하면서 평균은 한 거로 나타났죠. 마이너스 성장을 한 독일과 대조적이에요.

올해 들어 이들 국가 대표 주가지수 역시 최소 10%에서 최대 2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세계 투자자들이 이들을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MAGA에 빗대어 MEGA (Make Europe Great Again·유럽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어떻게 살아난 건데?

PIGS 국가들이 부활한 배경으로는 국가의 빚을 줄이는 작업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와요. 그리스 정부는 공무원을 절반으로 줄였을 정도예요. 세금은 올라가고 복지는 줄어드는 고통의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경제 살리기에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와요.

스페인 관광업 외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 국가적으로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고 있어요. 최첨단 5G(5세대 이동통신) 보급률도 벌써 90%에 달하죠. 스페인의 인터넷 산업 성장률은 향후 5년간 7%로 예측될 정도로 미래 전망도 밝아요.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많은 PIGS 국가들이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를 피했다는 분석도 나와요.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해 쓰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에너지 비용 급상승이라는 후유증에 시달렸어요. 반면 따뜻한 태양빛이 많은 PIGS 국가들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량이 많아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거의 수입하지 않았다고 해요.

PIGS, 이제 완전 살아난 거야?

PIGS 국가들을 아직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어요. 코로나19 종식으로 관광업이 재개되면서 반짝 부활한 효과라는 지적이죠. 국가 경쟁력을 지탱하는 건 우량한 제조업·금융업 등인데 PIGS 국가들에선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높은 국가부채도 약점으로 지적돼요. 그리스(158%·지난해 3분기 기준)와 이탈리아(135%), 스페인(108%)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긴 해요. 높은 국가부채는 성장에 있어 걸림돌이죠. 앞으로도 PIGS의 날갯짓은 계속될까요, 아니면 다시 추락하고 말까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매일경제 디그

경제공부 필수품
온·오프라인
서점서 만나세요



회장
발행·편집·인쇄인

장대한
장승준

등록번호 : 서울, 다50736
발행간격 : 주간
발행소 : 04627 서울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매일경제아카데미 이메일
구독 문의
광고 문의

teen@mk.co.kr
(02) 2000-2383
(02) 2000-2200

매경·금융저축정보센터 기획 후원 신한은행 KYOBO 우정사업본부 MERITZ 한국투자증권



미국에 공장 지으면 세금 덜 내고 보조금도 받아요



챗GPT가 생성한 '미국 공장 유치' 관련 이미지.

학교 매점이 문을 닫고 학교 밖에 편의점을 낸다고 상상해보세요. 학생들이 간식을 사먹으려면 편의점까지 가야 해서 더 많은 시간과 돈이 들겠죠. 쉬는 시간 안에 다녀오려면 험레벌떡 뛰어야 하고, 편의점이 가격을 올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할 거예요. 학생들은 고생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어 보다 편리해지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상황이 이와 비슷하답니다. 대기업들이 국내 공장(학교 매점)을 줄이고 해외(학교 밖)에 새로운 공장(편의점)을 세우고 있어요.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해외 시장에 팔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비싼 돈을 들여 해외에 공장을 짓는 걸까요?

리쇼어링이란 무엇일까?

‘리쇼어링(Reshoring)’이란 과거에 공장을 외국으로 보냈던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다시 만들어!” 하며 기업을 불러들이는 정책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안에서 자동차 만들면 관세 안 매길게”라며 미국에 생산 공장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있죠. 관세를 무겁게 매기되 동시에 “여기서 만들면 세금 덜 낼 수 있어!”라고 압박하는 방식은 일종의 보호무역주의예요.

미국은 관세를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보조금을 주기도 해요. 보조금이란 정부가 기업에 주는 지원금인데요. 삼성전자는 미국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약 6조9000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계약을 했고,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이유로 약 6700억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이 리쇼어링을 압박하는 이유는?

여기서 잠깐, 미국은 왜 이렇게 많은 돈과 관세 혜택을 주면서까지 해외 기업을 불러들일까요? 그 이유는 반도체 같은 중요한 기술이 필요한 상품을 자국에서 직접 생산하

려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반도체 공장이 전부 미국 밖에 있다면, 미국은 외국에서 반도체를 수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출국이 갑자기 “우리는 반도체를 비싸게 팔겠다”거나 “덜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큰 손해를 보겠죠.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기업들에 보조금과 혜택을 주고 자국에 공장을 짓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관세도 면제해준다 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으로 향했어요.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국내에 공장이 사라진다면 과연 이들을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경제는 과연 괜찮을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이유는 이해되지만, 그만큼 걱정되는 점도 많아요.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바로 일자리 문제예요. 공장이 해외로 옮겨지면,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고용이 악화되면 소비도 안 좋아져요. 직업을 잃게 된 사람들은 소득이 없으니 음식을 덜 사 먹고 쇼핑도 안 하고 영화도 보러 가지 않는 등 지갑을 닫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서 시작된 어려움이 줄줄이 퍼지면서 전체 경제가 나빠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경제가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바로 기술 유출이에요.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연구개발(R&D)에 돈을 들여 힘들게 얻은 기술인데, 공장이 해외에 있다 보면 외국 인력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 기술을 갖고 있고,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에 꼭 필요한 HBM(고대역폭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술력을 자랑해요. “기술은 우리가 만들었는데, 결국 다른 나라만 이득을 보는 건 아닐까?”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죠.

남궁석 인턴기자

보호무역 앞세운 트럼프
외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
세금 줄이려는 해외기업
미국에 공장 짓게끔 유도

국내 공장 해외로 이전
일자리 줄어들며 소비 뚝
한국 경제 악순환 가능성

언어 천재 보노보 ‘칸지’의 일생



교과서 밖 과학이야기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고 있는 칸지.

유튜브 채널 ‘ChrisDaCow’

2025년 3월 18일 천재 보노보로 잘 알려진 ‘칸지’가 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칸지의 얼굴만 보면 “침팬지야, 고릴라야?” 하고 의문을 갖지만 칸지는 보노보였습니다. 보노보의 학명은 판 파니스쿠스(Pan paniscus)이며 콩고민주공화국에 모여 살고 있어요.

침팬지와 고릴라는 가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보노보는 평화롭고 협력적인 성격을 가진 영장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노보는 갈등이 생겼을 때 공격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친밀한 접촉이나 놀이, 털 다듬기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지요. 안타깝게도 보노보는 서식지 파괴로 인해 현재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었어요. 칸지의 일생을 통해 보노보와 인간이 얼마나 비슷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칸지의 탄생과 언어

칸지는 1980년 10월 28일 미국 여키스 국립 영장류연구소에서 수컷으로 태어났어요. 처음에 칸지는 엄마 ‘로렐’과 함께 지냈지만 로렐은 칸지를 돌보는 데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암컷 보노보 ‘마타타’가 칸지를 돌보게 되었죠.

칸지는 어릴 때부터 언어를 배우는데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에 연구원들은 마타타에게 ‘렉시그램(lexigram)’이라는 키보드를 사용해 언어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렉시그램은 유인원과 소통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만든 그림 문자예요. 하지만 칸지의 엄마 마타타는 이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칸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렉시그램의 의미를 혼자 깨닫고 배우게 되었어요. 연구원들은 매우 놀랐고, 칸지는 본격적으로 언어교육을 받게 되었죠. 칸지가 두 살이 되었을 때, 여러 렉시그램을 조합해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칸지는 렉시그램을 사용해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나 원하는 것을 전달하곤 했지요.

언어 능력을 계속해서 키운 칸지

한 실험에서 연구원들은 칸지가 말을 알아듣는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총 660개의 영어 문장 명령을 주고 칸지

의 수행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특히 ‘가역적 문장(reversible sentences)’ 실험을 통해 칸지가 문법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했어요.

가역적 문장이란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를 바꾸어도 문법적으로 성립하는 문장을 말해요. 예를 들어 “콜라를 레모네이드에 부어라”와 “레모네이드를 콜라에 부어라” 같은 문장은 단순히 단어의 의미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고 어순을 통한 문법 규칙을 이해해야만 정확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칸지는 20쌍(총 40개)의 문장 중에서 31개(78%)를 완벽히 이해해 수행했고, 7개(18%)는 부분적으로 맞히고, 2개(5%)만 틀렸어요. 이는 칸지가 단어뿐만 아니라 문법 구조까지 이해했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또 칸지와 많은 시간을 보낸 연구원인 수 새비지럼보(Sue Savage-Rumbaugh)는 2006년에 칸지가 대략 3000개의 영어 단어를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칸지는 더 복잡한 일들도 배웠어요. 돌로 도구를 만들어 끈을 자르기도 하고, 성냥으로 작은 불을 피워 마시멜로를 구워 먹기까지 했습니다. 2024년에는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는 법을 6개월 동안 훈련받아 보스 ‘엔더 드래곤’을 물리치는데 성공했어요.

칸지가 남기고 간 것

칸지는 44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칸지가 사망한 날 오전까지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고 해요. 칸지는 최근 심장병으로 치료받고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심전도 및 혈압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칸지가 지구에 남기고 간 것은 특별해요. 칸지의 언어적 호기심과 이해력 덕분에 동물의 인지 능력과 인간 언어의 진화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노보는 인간과 98.7%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칸지를 통해 인간과 유인원이 단지 유전적으로만 비슷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지능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닮아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죠. 칸지의 일생에 대해 돌아보면서 우리는 동물과 자연을 더욱 경이롭게 바라보고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정주희 연구원



핵심포인트!

보노보

침팬지의 친척으로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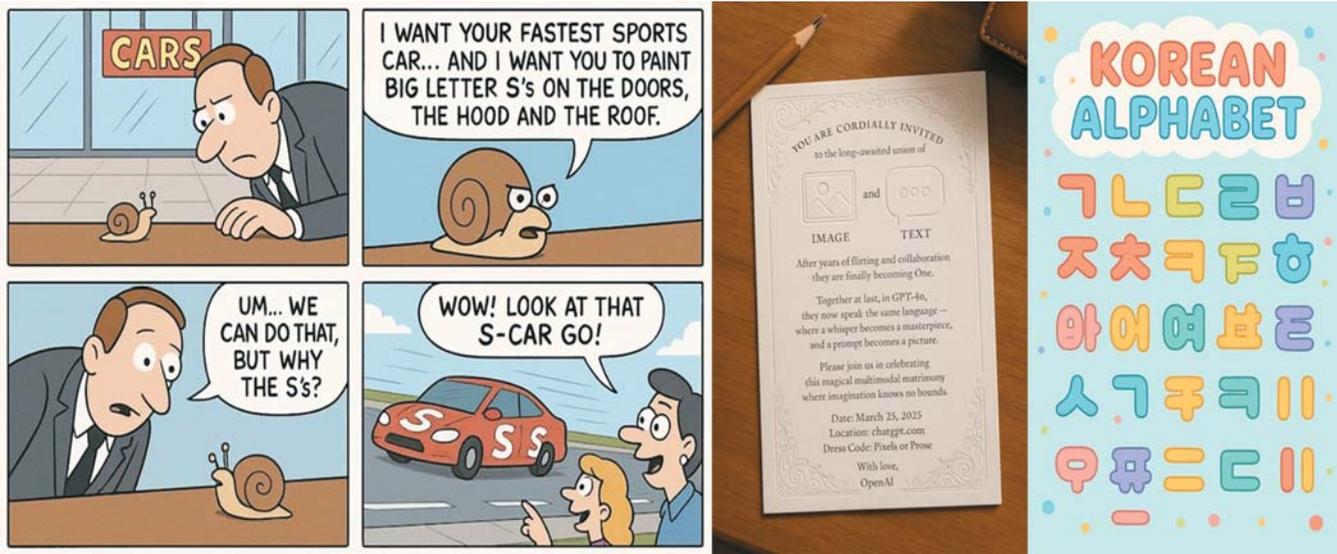
렉시그램

유인원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그림 문자

가역적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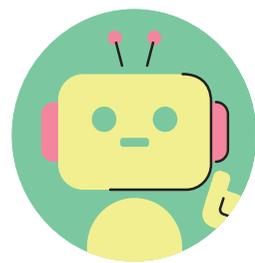
주어와 목적어 위치를 바꿔도
문법적으로 성립하는 문장

진화하는 챗GPT... 네 컷 만화까지 그려요



3월 25일 업데이트된 챗GPT로 생성한 카툰 이미지, 초대장 이미지, 한글 자음 포스터.

연합뉴스·오픈AI 공식 사이트



AI 최신 이슈

공부할 때, 고민이 있을 때, 대화를 나누고 싶은 상대가 필요할 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고 싶거나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인공지능(AI)에 도움을 요청하곤 합니다. 특히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챗GPT는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한 번씩은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지난 3월 25일 챗GPT를 만든 회사 ‘오픈AI’는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챗GPT 4o 이미지 생성’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모델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합한 첫 사례라고 하네요. 오픈AI는 온라인상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분포(joint distribution)를 기반으로 모델을 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향상된 기능은 텍스트 렌더링(Text rendering), 멀티턴 생성(Multi-turn generation), 문맥 내 학습(In-context learning) 등 크게 3가지입니다. 3개의 기능이 향상돼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과 퀄리티가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렌더링’은 정확한 기호(텍스트)와 이미지를 혼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는 메뉴판·초대장 등 ‘텍스트’가 들어 있는 이미지를 AI가 어려워 문장이 깨져서 나오거나 객체 속성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번 업데이트로 텍스트 인지 기능이 향상돼 제대로 된 문장과 단어를 이미지에 함께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화를 그려 달라고 하면 대화 말풍선이 들어간 만화를 생성해 주고, 자연법칙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교육용 잡지처럼 포스터 이미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멀티턴 생성’은 기존 프롬프트(명령)와 이미지가 추후 계속되는 질문에도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챗GPT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생성되어 ‘이미지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서 ~ 더 추가해 줘’라고 했다가 기존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생성됐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사용해 전체 작업 과정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맥 내 학습’ 기능은 사용자와 대화한 내용 혹은 이미지의 세부 정보를 맥락 속에 자연스럽게 통합하고 이를 이미지 생성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전 모델에서는 ‘바퀴가 세모인 자전거를 그려줘’라고 했을 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물리 엔진이라 이를 구현해내지 못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로 상상력이 필요한 ‘세모바퀴 자전거’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픈AI는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도 챗GPT에는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지 잘림, 환각, 높은 수준의 결합 문제, 정확하지 못한 그래프 생성, 다국어 텍스트 렌더링 미흡 등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네요. 이러한 결합과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AI는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보면 어딘가 어색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꿈에서 인과관계가 뒤죽박죽인 상황이 연출되거나 손가락이 6개인 사람이 등장하는 등 마치 AI가 생성했을 것만 같은 장면이 나온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AI는 사람과 다르게 이성이나 감정이 없고 오로지 학습을 통해 명령을 따르는 프로그램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AI에서 발견되는 결합은 우리가 무의식중에 꿈에서 보는 이상한 장면과 유사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픈AI는 ‘챗GPT 4o 이미지 생성’ 기능을 발표하자마자 저작권 침해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해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의 그림체를 모방한 밈 제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픈AI가 지브리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와 함께 실제로 사진을 찍은 것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SNS상에서 유행이라고 하네요. 이는 아이돌 홍보 및 열성 팬 활성화에 있어서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 합성,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로 파생된 범죄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AI를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픈AI의 챗GPT 업그레이드와 함께 경쟁사들의 이미지 생성 AI 모델들이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과도기에 있지만 AI와 함께하는 미래 사회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박현진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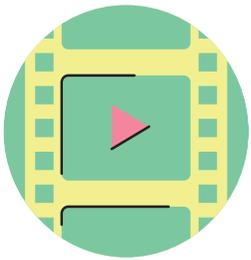


AI상식 CHECK

챗GPT 유해 콘텐츠 차단

1. 실존하는 인물 이미지가 맥락에 포함된 경우 생성될 수 있는 이미지 종류에 대해 더욱 강화된 제한을 적용 중입니다.
2. 노출 및 폭력적인 장면에 대해서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 중입니다.

팝콘 먹으며 소리지르고... “야구장에 온 것 같아요”



영화관 야구중계 현장



응원가를 부르며 경기 관람 중인 관객들.

여러분, 축구나 야구 관람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경기는 주로 어디서 관람하시나요? 가족 또는 친구들과 편하게 응원하고 싶어서 TV나 유튜브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 경기장에 직접 찾아가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특별한 곳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바로 영화관에서요.

‘2025 KBO 리그’가 시작되며 영화관 또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코로나19로 하락한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 아이돌 콘서트, 스포츠 경기 생중계, 이전 영화 재개봉 등 신작 영화 이외의 다양한 영상물을 상영하는 것에도 집중하고 있어요. 올해 3월에는 CGV가 KBO 리그(대한민국 프로 야구 리그)의 단독 극장 생중계로 야구 팬들을 찾아왔습니다. 영화관에서의 야구 관람은 어땠는지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야구 중계를 위한 특별한 영화관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된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를 보기 위해 CGV 용산아이파크몰을 찾았습니다. 같은 시각에 KBO의 다른 경기도 생중계됐기 때문에 영화관은 입구부터 야구팬들로 가득했어요. 야구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보며 야구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들었습니다.

친구, 연인과 함께 혹은 가족다 같이 온 사람도 있었고 혼자 응원하러 온 팬도 적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봤던 경기는 대전에 위치한 경기장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팬들이 영화관에 많이 모였어요.

영화관에 들어가니 더 야구장 같았습니다. 관객들은 로비에서 보이지 않던 응원도구를 장착하고 있었어요. 목에 응원 타월을 두르거나 머리띠를 하기도 했고, 두 손에 응원봉을 짝 쥐는 등 만반의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스크린은 한 방송사의 생중계 화면을 보여줬고 그렇게 오후 2시에 경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일반 영화관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보통 영화 상영의 경우 관객들이 영상에 집중하도록 모두 소등하지만, 이번 상영의 경우 경기 시작 후에도 불

이 계속 켜져 있었어요. 그 덕분에 마치 실제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처럼 야외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떠들기도 가능

분위기 또한 기존의 영화관과 정반대였습니다. 3회 말에 첫 득점이 나오고 팬들의 본격적인 응원이 시작되면서 영화관은 야구장으로 변해 갔습니다. 관객들은 화면 속 응원가에 맞춰 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의자에 앉아 응원 동작도 힘차게 했습니다. 응원 타월을 머리 위로 흔들며 자신이 응원하는 구단과 선수의 이름을 외치기도 하고, 특히 팀이 득점을 하면 소리를 지르며 기립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영화 관람 시에는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대화를 지양했지만 야구 중계 때는 옆 사람과의 대화는 물론이고 저마다 큰 목소리를 내며 응원을 이어 나갔어요. 분명 똑같은 영화관에 앉아 있는데 시끌벅적하니 낯설기도 했습니다. 출입 역시 자유롭게 이뤄졌는데 특히 이닝이 끝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몸을 풀기도 하고 밖에 나가 음식을 사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영화관이더라도 놓칠 수 없는 간식

야구장의 묘미 중 하나는 바로 음식이죠. 영화관도 이를 알았는지 CGV는 KBO 생중계와 함께 ‘홈런 시리즈’를 새롭게 출시했어요. 3월 20일부터 판매되는 특별 스낵은 콜팝 3종과 만루홈런 세트로 크게 두 종류가 있고, 가격은 1만5500원에서 시작합니다. 달콤팝콘 대자가 7500원으로 시중보다 2배가 넘는 가격인데도 야구를 보러 온 많은 관객이 해당 스낵을 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떡볶이와 닭강정 콜팝을 먹었는데 일반 분식집에서 파는 것만큼 맛있었고 주문 이후에 조리가 시작돼서 따뜻하기까지 했어요. 공복이었는데도 먹고 나니 배가 찰만 큼 양도 많았습니다. 특히 기존의 탄산음료 컵 위에 음식 받침대를 결합하는 방식은 어린 시절 콜팝의 추억까지 되살아나게 해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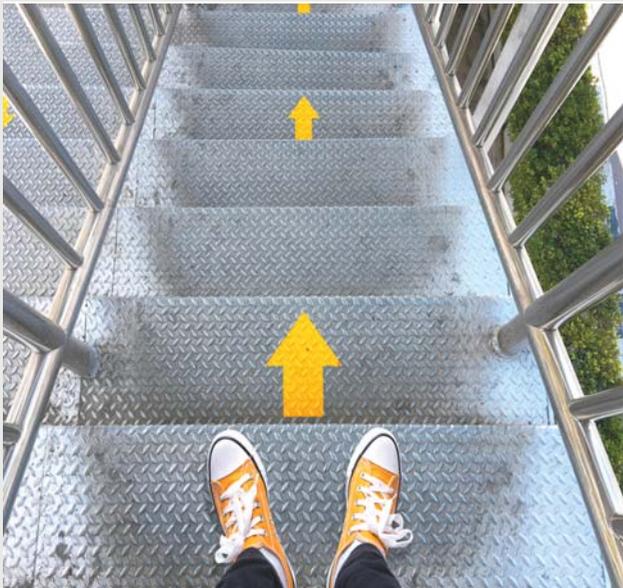
하소윤 인턴기자



‘2025 KBO 리그’ 생중계와 함께 CGV가 출시한 콜팝.

미 관세 때문에 우리 경제 힘들어진대요

Goldman Sachs slashes Korea's 2025 growth outlook by 0.3%p



2025.03.26

Goldman Sachs, a leading global investment bank, has **revised** down its outlook for Korea's economic growth rate this year by 0.3 percentage point. The move follows a 0.6 percentage point slash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ccording to the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e on Tuesday, Goldman Sachs recently revised Korea's ①growth forecast for this year to 1.5 percent from 1.8 percent. Amo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Goldman Sachs had previously maintained one of the highest growth projections, second only to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hich forecasted 2 percent growth.

Goldman Sachs' decision to revise its outlook,

despite maintaining its projection even during periods of martial law and impeachment proceedings, is attributed to the concerns surrounding U.S. ②tariff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Goldman Sachs said in its report that the expected automobile tariffs from the U.S. are responsible for half of the downward revision in our growth forecas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announce a 25 percent tariff on Korea's top two ③export items to the U.S. - automobiles and **semiconductors** - starting April 2.

On the same day, detailed plans for imposing reciprocal tariffs on major U.S. ④trade deficit countries are also expected to be **unveiled**. According to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utomobiles were Korea's top export item to the U.S. last year, amounting to \$34.7 billion. This figure is three times higher than the second-largest export item, semiconductors, **indicating** that auto tariffs would significantly impact Korea's exports and economic growth.

By Moon Ji-woong and Han Yubin

[© Pulse by Maeil Business News Korea & mk.co.kr. All rights reserved]



NIE/영문뉴스 돋보기

한눈에 보는 기사 요약

골드만삭스가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1.8%에서 1.5%로 0.3%포인트 내렸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과거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도 기존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해왔지만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전망치를 내렸습니다. 전망치 하향 조정의 절반은 미국이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기사를 쓸 시점에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미국 수출 1, 2위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 4월 2일부터 25%의 관세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영어로 배우는 경제용어

① **Growth forecast** (성장 전망):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지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OECD, IMF와 같은 각종 기관들은 각 국가의 경제 성장 전망을 내놓습니다. 이 표현은 growth outlook 또는 growth projection 등의 표현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 **Tariffs** (관세): 수입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국 산업 보호, 무역 적자 해소 등을 위해 활용됩니다.

③ **Export items** (수출 품목):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 판매하는 물품이나 상품을 뜻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물품은 수입 품목 (import items) 이라고 합니다.

④ **Trade deficit** (무역적자):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무역에서 손실이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무역흑자 (trade surplus) 라고 합니다.

유용한 영어 단어 및 표현

Revise: 수정하다 (예: revise an opinion → 의견을 수정하다.)

Despite: ...에도 불구하고 (예: Despite a trade surplus, the economy is struggling →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Semiconductor: 반도체 (예: semiconductor industry → 반도체 산업)

Unveil: 발표하다 (예: unveil a new product → 새 상품을 발표하다.)

Indicate: 나타내다, 보여주다 (예: Recent reports indicate rapid economic growth → 최근 보고서들은 빠른 경제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주희 연구원

아이돌 “9년만에 중국 팬 만나 설레요”



꼭 알아야 할
최신 뉴스



최근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인기 K팝 아이돌 아이브가 중국을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한한령 해제할까...아이돌 잇따라 중국行

최근아이브, 트와이스 등 한국의 인기 K팝 아이돌 그룹들이 중국을 방문해 팬 사인회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실상 한국 문화 콘텐츠 유입을 중단하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시행한 이후 무려 9년 만입니다.

중국은 2016년부터 주한 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한한령을 고수해왔는데요.

저우샤오레이 베이징외국어대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

▶ NIE 준비하기

1. 중국이 한한령을 시행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시다.
2. 한한령이 해제되면 국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닝포스트(SCMP)와 인터뷰를 통해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프가 중국에 압박을 더 가하기 전에 중요한 이웃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한다”고 말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산불 피해, 성묘객 실수로 시작

지난 3월 22일 뉴스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안동·청송·영양·영덕 지역까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역대급 산불 피해를 냈는데요.

지난달 21일 시작된 이번 산불로 인해 26명이 사망하고 건물 2412동이 피해를 입었으며, 소중한 문화재인 천년 고찰 고운사가 전소하는 등 슬픈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의성 산불 확산 속도는 시간당 8.2km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는 사람이 달리는 평균 속도인 시속 6~7

▶ NIE 준비하기

1.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불 및 화재 예방법에 대해 숙지 하도록 합시다.

km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9일 만에 완전히 진화된 산불은 성묘객 실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을 위한 기업 및 유명 인사들의 기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예산, 700조가 넘는다고?

지난 3월 25일 정부는 ‘2026년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내년 정부예산이 700조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700조원이 넘는 건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올해 예산액인 677조원보다 약 23조원이나 많은 금액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전쟁을 비롯해 불확실한 세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 예산을 집중 편성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수 등 민생 회복도 예산편성 방향의 핵심인데요. 온누리상품권 발행 증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어요.

▶ NIE 준비하기

1. 정부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을 경우 장단점에 대해서 토론해봅시다.
2.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에 관해 공부해봅시다.

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매년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자체적인 판단으로 지출하는 ‘재량지출’ 비율을 10% 이상 줄여 과도한 국가 부채 증가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현진 연구원



2016년

사드 배치 반발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 시행

시속 8.2km

사람보다 빨랐던
역대 최고 산불 확산 속도

700조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2026년 정부예산

한 시간 줄 서서 산 베이글... 왜 더 맛있다고 느낄까?

Q. 몇 달 전 이모가 베이글을 사오셨어요. 요즘 핫플인 ○○베이글 가게에서 줄 서서 사 온 거라고 먹어 보라고 했어요. 맛있긴 했지만, 가격을 듣고 놀랐습니다. 집 앞 빵집의 2~3배 가격이었던 거예요. 줄 서서 먹는 핫플에서 사 온 거라서 더 맛있다고 착각하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왜 구하기 어렵다거나 줄 서야 하는 수고가 더해지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걸까요?



챗GPT가 생성한 '베이글 가게' 관련 이미지.



김나영 선생님의
쉬운 경제

A. 여러분 'Do a Bradbury'라는 말을 아세요? 브래드버리(Bradbury)는 사람 이름입니다. '예기치 못한 행운을 만나다'란 뜻이에요.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쇼트트랙 1000m에서 금메달을 딴 호주 선수죠. 그는 예선 경기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뒤처지고 있었는데, 앞의 선수들이 실격당하면서 통과해요. 준결승, 결승에서도 앞선 선수들이 다 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엄청난 행운이 있을 수 있나요? 처음에 호주 국민은 브래드버리의 금메달은 펠리컨이 물어다 준 메달이라며,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적 영웅이 됐죠. 그 비밀, 줄 서서 먹는 베이글이 더 맛있다고 느끼는 심리에 있어요.

친구에게 똑같은 가방을 선물하면서 이탈리아에서 사왔다고 할 때와 집 앞 가게에서 사왔다고 할 때,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선물로 느껴질까요? 어쩐지 이탈리아에서 사 온 가방이 더 가치 있다고 느껴집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물건을 가치 있게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인은 '얼마나 어렵게 멀리서 왔는가'입니다. 멀리서 어렵게 왔기에 더 커진 만족감을 거래효용이라고 합니다. 실제 가치와는 무관하지만,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더 큰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힘들게 얻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건 물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SNS에서 많이 소개되며 인기 있는 가게들의 특징. 한 가지를 꼽아보면 대기하는 줄이 길다는 겁니다. 음식이든 물건이든 파는 가게든, 그곳에서 파는 게 정말 가치가 높아서 인기가 있고 그래서 줄이 긴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줄이 길어서, 가기가 어려우니' 더 인기가 많아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맛집 후기를 보면, '이런 인파를 뚫고' '드디어' '기다린 끝에' 등의 말들이 많이 나와요.

거래효용은 돈에도 적용이 됩니다. 같은 금액의 돈이라도 쉽게 들어온 돈과 어렵게 번 돈은 느껴지는 가치가 다르거든요. 실제로 백화점에서 경품으로 10만원권 상품권이 당첨된 상황을 두고 실험을 해봤어요. 당첨자들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눴어요. A그룹에게는 상품권을 바로 나눠줬고, B그룹에게는 상품권이 백화점 본사에 있어서 지점 직원이 본사에 가서 찾아와서 드린다고 하고는 한참 대기한 후 수령할 수 있게 했어요. 이런 경우 A그룹 사람들은 대체로 상품권을 모두 사용하지만, B그룹은 좀 더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게 된다는 겁니다.

'Do a Bradbury'의 브래드버리 선수가 호주의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건, 호주 사람들 마음에 브래드버리 선수의 거래효용이 적절히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앞선 12년간 가장 불행했던 선수라는 게 알려지면서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지만 안타깝게도 부상으로 번번이 좌절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죠.

노력했지만 불운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의 운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멀리서 어렵게 온 운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누군가나의 성과를 우연이나 행운이라 치부하면 속상할 거예요. 이럴 때는 그동안 자신이 겪은 실패담을 얘기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거래효용의 개념은 여러분이 면접을 볼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면접관들의 단골 질문 중 하나가 "왜 지원했나요?"예요. 그런데 이때, "집이랑 가까워서요"라고 답하면 스스로 거래효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멀리서 힘들게 와야 하지만, 그럼에도 이 학교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할 때 거래효용이 높아져 여러분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거든요. 서울 양정중학교 교사, 실험경제반 운영



시사용어 CHECK

거래효용

물건의 실제 가격과 마음속 가격의 차이에 따라 느끼는 만족감을 뜻합니다.

거래효용이 낮다면 소비자들은 좋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고서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에 소비자가 생각한 기준보다 물건의 가격이 낮을수록 효용은 커집니다.

고려 왕건은 왜 고구려 수도를 챙겼을까요

“옛 도읍인 평양이 황폐해진 지 비록 오래되었으나...여진족이 변방을 침략하기도 하니 해로움이 크다. 마땅히 백성을 옮겨 이곳을 채우고 변방을 굳게 지켜 대대손손 이롭게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평양을 대도호(大都護)로 삼고 사촌 동생 왕식렴을 보내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고려사)



조인 강사의 한국사 탐방

궁예를 몰아낸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나라의 이름을 ‘고려’라 정했습니다. 강한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갖고 있던 왕건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중시하여 개경만큼 중요하다는 뜻으로 ‘서경(西京)’이라 했어요. 왕건은 왜 서경을 중시하고 북진정책을 추진했을까요?

Q. 왕건이 고려를 건국할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A. 왕건은 옛 고구려 지역이었던 황해도 지역의 대표적인 호족이었습니다. 왕건은 궁예 밑에서 후고구려의 건국(901년)을 도왔고 자신이 살던 송악(훗날의 개경)이 수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초기와 달리 궁예는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며 점점 황해도 지역 호족들을 견제합니다.

911년 궁예는 황해도 호족들의 실망을 뒤로한 채 멀리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조차 ‘태봉’이라고 바꿉니다. 청주의 호족 세력과 손잡아 많은 사람을 수도 철원으로 이주시키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합니다.

궁예의 부인인 강비는 원래 황해도 지역 호족 집안 출신입니다. 강비는 황해도 지역 호족들을 대변하여 궁예를 압박했다가 도리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자식, 왕자들도 모두 죽으며 황해도 지역 호족들은 궁예 사후 왕위 계승 역시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918년 권력에서 점차 배제되던 황해도의 호족 세력들은 왕건을 중심으로 궁예를 몰아내고 다시 수도를 자신들의 근거지인 송악으로 되돌리고 국호 역시 ‘고려’로 하였습니다.

호족들의 지지로 왕위에 오른 왕건의 왕권은 그리 강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강릉의 호족 김순식은 오랫동안 북종하지 않아 왕건이 근심했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입니다. 게다가 남쪽에는 강력한 후백제의 견훤이 존재했고 신라를 구하러 가다가 왕건이 공산 전투에서 대패하며 죽을 뻔했을 정도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왕건은 여러 호족의 마음을 얻고자 호족 통합 정책을 추진합니다. 후백제와 전쟁을 통해 강릉 호족의 지지를 얻어냈고, 왕 즉위 이후 각지의 강력한 호족 딸 25명과 정략결혼을 하며 왕권을 안정시켰습니다.

Q. 왕건은 왜 북진정책을 추진했나요?

A. 기본적으로 왕건은 고구려 계승 의식이 강했습니다. 옛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북진정책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려 건국 이후로도 왕건의 왕권은 매우 약했습니다. 왕건이 왕권 강화를 위해 찾아낸 묘수는 ‘북진정책’이었습니다.

수도 개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쪽 지역은 호족이 사실상 그 지역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왕권이 약한 왕건은 죽을 때까지 그곳을 통치할 지방관 1명을 파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왕건은 북쪽에 주목합니다. 왕건은 고구려 계승을 내세워 북진정책을 추진해 새로운 북쪽 땅을 점점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태조(왕건) 말년에는 평안도 청천강에서 함경도 영흥 지방에 이르는 영역까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후삼국시대와 왕건의 북진정책.

여진족을 몰아내고 새로 얻은 그 땅에는 호족이 없었고, 왕의 직접적인 통치 지역으로 왕권 강화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영토는 훗날 고려의 지방행정 조직(5도양계)에서 북쪽 국경 지역에 해당하는 ‘양계(북계+동계)’가 되었습니다.

호족들이 마음대로 다스리는 5도(경상도, 전라도, 양광도, 서해도, 교주도)는 지방관이 없는 속현이 많았지만, 왕이 직접 정복한 양계(지금의 평안도, 함경도)의 대부분 지역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었습니다. 양계에는 왕이 파견한 병마사가 국경의 군대를 지휘하였고, 국경에는 강력한 왕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북쪽 지역의 중심은 당연히 서경(평양)이었고, 왕건은 유언 훈요 10조에도 밝혔듯 서경을 중시하라고 자주 언급했습니다.

태조와 고려 3대 왕인 정종은 서경으로 천도할 계획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거란의 소손녕과 담판했던 서희가 수도를 ‘서경’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고려 초기의 왕들은 1년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4개월 정도를 서경에 머물며 정치를 했습니다. 이렇듯 왕건이 중시했던 서경 지역은 고려 초기 왕권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00여 년 뒤 이 서경 지역의 대표였던 묘청이 ‘서경천도운동’을 추진하며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까지 지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강남대성학원 강사·전 이화여고 역사교사



평양(서경)

왕권이 중시한 옛 고구려의 수도

북진정책

왕건이 고구려 계승을 내세우며 추진한 정책

양계

남쪽 5도와 대비되는 북쪽의 국경지역

대만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다고?



챗GPT가 생성한 '국공내전' 관련 이미지.



김창현 선생님의
국제관계 토크아보기

우리가 잘 몰랐던 나라 ③ 대만

1911년부터 1950년까지 중국 본토의 역사는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6·25전쟁과 비슷합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이라는 두 세력이 중국을 두고 같은 민족끼리 두 번 전쟁을 벌인 것이지요. 이를 '국공내전'이라고 합니다.

국민당은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이어진 두 번째 전쟁에서는 점점 밀리다가 패배합니다. 국민당 정부는 전쟁 중에 대만으로 이동을 준비하다가 1949년에는 본토의 영토를 잃고 완전히 대만으로 옮겨갑니다.

그 당시 대만에는 본토 중국인과는 또 다른 대만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시대에 건너와서 민남어와 객가어라는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수였고, 청나라 시대 이전부터 살았던 대만 원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들어온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대만인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웠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절 50년간 따로 살았던 본토의 중국인들이었기에, 이들을 대만에서는 바깥 외(外)자를 써서 '외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외성인들은 물러간 일본인들보다 대만인들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정부의 좋은 자리는 본인들이 차지하고 대만인들의 복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1947년 길거리에서 담배를 팔던 대만 여인을 외성인 대만 경찰이 그 자리에서 폭행을 가하는 '2·28사건'이 발생했고, 억눌렸던 대만 사람들의 민심이 이 사건으로 폭발합니다.

그러나 대만 당국은 군대를 불러들여 시민들을 가혹하게 진압하고, 1949년에는 계엄령을 선포해서 무려 40년간이나 유지합니다. 다행히 여러 대만인의 꾸준한 노력으로 민주화가 진행됐으며, 지금은 우리나라처럼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역사가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멋진 별명도 얻었습니다.

대만은 국제무대에서도 존재감이 강했습니다. 1971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유

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단 5개의 나라만 모여 있는 유엔의 '어벤져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유엔의 매우 중요한 결정들이 이뤄지는 힘 있는 자리입니다.

대만이 1971년까지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유엔이 기본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국가들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차대전의 주범 일본과 싸워 이긴 승전국이었고, 그 중국은 국민당의 장제스 정부가 대표하는 중국이었습니다.

비록 1950년 이후 장제스의 국민당이 공산당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대만으로 쫓겨나긴 했지만, 중국과 국민은 대만이 대표한다는 논리하에 대만을 상임이사국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 거대한 중국 본토를 차지한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워갔습니다. 미국마저 중국의 유엔 가입을 막지 않으면서 1971년 유엔은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를 중화인민공화국이 대체하도록 결정합니다. 유엔의 창립 멤버였던 대만로서는 매우 뼈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빠르게 고립됩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중국에 속한 하나의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며, 중국과 수교하고 싶은 국가는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원칙은 미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고 있을 뿐 대만과는 공식적 외교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나라가 대만과 외교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를 선택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경제력을 생각하면 놀라운 것이 없는 결정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만과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는 12개 국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우리가 이름을 거의 알지 못하는 작은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대만의 국제적 영향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국제경제에서 대만의 중요성과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천외고 영어교사



핵심북!

국공내전

국민당과 공산당이 중국에서 치른 두 번의 전쟁

1971년

대만이 유엔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상실한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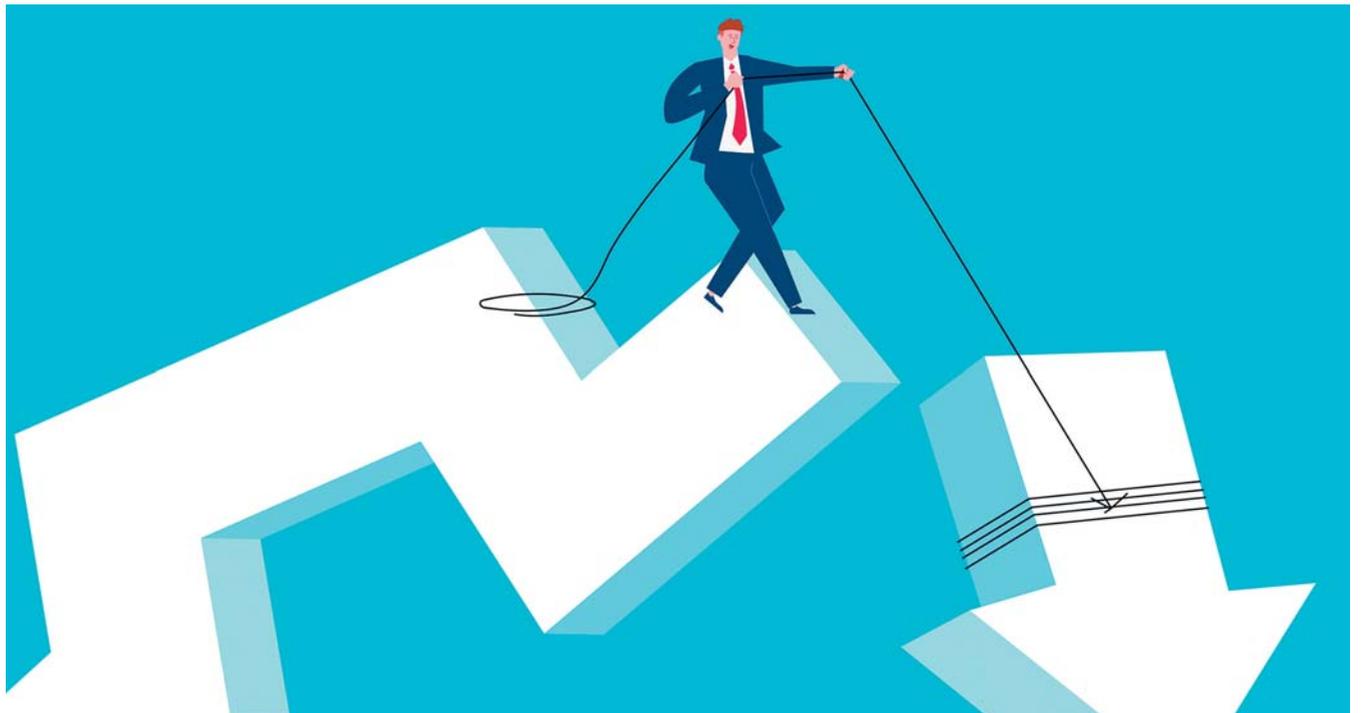
하나의 중국

중국과 수교하는 국가는 대만과 수교 불가라는 원칙

정보가 중요한 주식 투자...가짜 뉴스에 속지 마세요



허서운 기자의
재테크 첫걸음



게티이미지뱅크

고수익 고위험. 투자의 세계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규칙입니다. 주식투자는 기본적으로 고수익을 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을 잘 관리해야 투자 정글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시 자체가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이 증시를 떠나지 않게 하고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을 제도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식시장에는 정보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 주가가 갑자기 출렁이는 경우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정보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금융시장에서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정보'입니다. 증시에 상장된 기업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지 못하거나 가짜뉴스로 주가조작이 판친다면 결국 투자자들만 손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기업의 공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시를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완전히 공개하도록 해서 투자자들이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업들은 최초에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부터 증권신고서, 일괄신고서 등을 통해서 기업 내부의 정보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주식이 발행된 이후에도 회사의 사업 상황, 재무 상태,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 합병이나 자사주 취득 및 처분 혹은 사업계약 체결과 파기 등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도 즉시 알려야 하고, 기업에 관한 소문이나 뉴스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좋은 소식은 최대한 홍보하겠지만, 나쁜 소식을 알리는 데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노력이 지나쳐서 투자자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대규모 계약과 같이 주가에 호재가 되는 소식은 적극적으로 공시를 하는 반면 계약이 파기되거나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은 경우 이에 관한 공시를 증시 마감 직전이나 심한 경우 마감 이후에 슬쩍 밀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올빼미 공시'를 주의해야 합니다.

주가 급등락 댄 강제로 '멈춤'

주가는 '탐욕과 공포'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주가는 대체로 기업의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 전체 혹은 기업의 실적에 큰 충격이 가해지면 투자자들이 과잉 반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과서에 나온 것과 같이 합리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주식을 내던지거나 아니면 추격 매수에 달려드는 광경이 낫설지 않죠.

증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한 쪽으로 쏠릴 때 이를 진정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주요국 증시 중 일부에서는 당일 매매 시간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격제한 폭(상한가·하한가)을 미리 정해놓고 주가가 그 가격 안에서만 거래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격제한폭이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증시가 심각한 공포에 휩싸여 상하한가 제도로는 주식 매매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아예 주식 거래를 중단시키는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야 하죠. 1987년 10월 19일 뉴욕증시가 하루에 22.6%가 폭락하는 '블랙먼데이' 사태가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 도입된 제도가 바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입니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매매거래중단)는 주가지수가 기준 이상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 매매를 20분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서킷브레이커의 전 단계인 사이드카(Side Car·호가의 효력일시정지)는 선물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금지시키는 '경보' 단계로 선물시장의 혼란이 코스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ETNETF로 승부하라〉 저자



시사용어 CHECK

올빼미 공시

기업의 악재성 공시를 마감 이후 몰래 내놓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추석이나 설 연휴 혹은 연말 폐장 직전에 대규모 계약 해지와 같은 공시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컬러렌즈, 예뻐보여도 눈에는 안 좋아요



게티이미지뱅크



김보람 기자의
보람찬 건강이야기

반에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친구를 찾기 어렵습니다. 요즘 ‘근시’가 청소년에게 매우 흔하기 때문인데요. 근시란 먼 곳에 있는 물체가 잘 안 보이는 안과 질환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근시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114만5321명이었는데, 이 중 20세 미만인 약 58%를 차지했습니다. 근시가 있다면 매일 착용하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잘 관리해야 성인이 되어서도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굴절이상’으로 발생하는 근시

눈은 외부 물체에서 발생한 빛을 굴절시켜 눈 속 신경인 망막에 정확한 상을 맺게 하고, 이를 뇌에 전달합니다. 이 원리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물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선 눈에 들어오는 평행한 빛이 각막과 수정체를 지나며 적절하게 굴절돼 망막의 중심오목에 하나의 초점으로 맺혀야 합니다.

이 굴절 과정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는 것을 ‘굴절이상’이라고 합니다. 굴절이상으로 빛이 망막 앞쪽에 맺히면 근시를 유발합니다. 눈 성장이 활발한 만 7~9세 사이에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10대 후반까지 근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고도근시, 초고도근시로 진행됩니다.

백승희 김안과병원 전문의는 “고도근시는 망막박리, 녹내장, 근시성 망막변성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아·청소년기에 근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안경·콘택트렌즈 잘 관리하고 컬러렌즈 삼가야

근시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합니다. 본인 시력에 맞지 않는 안경을 오래 쓰면 눈에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시력이 계속 변하기에 6개월에 한 번씩 시력검사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콘택트렌즈는 눈에 직접 닿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위생을 지켜야 합니다. 렌즈를 뺀 후 문질러 닦아 단백질을 제거하고 보관하는 것이 착용 전 세척보다 더 중요한 단계입니다. 만약 오염된 콘택트렌즈를 오래 끼고 있으면 각막염, 결막염 등 안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렌즈 착용은 하루 6~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눈이 충혈되거나 피로

하면 단 10분이라도 렌즈를 빼야 합니다.

또 컬러렌즈 착용은 삼가야 합니다. 컬러렌즈에는 색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렌즈보다 두꺼워 산소투과율이 떨어집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 눈은 산소를 더 받기 위해 비정상적인 혈관을 만듭니다. 이를 ‘신생혈관’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혈관이 없어야 할 투명한 각막에 혈관이 생기면 빛을 굴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시력이 감퇴하고, 심하면 실명합니다.

눈 건강 관심 필요한 환절기

지금 같은 환절기에는 눈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날씨가 건조해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은 말 그대로 물 생성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빠르게 증발하는 상태입니다. 이 역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 저하, 각막 손상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눈이 자주 시린 경우,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흐를 때, 눈이 뻑뻑하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경우 병원을 찾아 치료받아야 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물을 마셔 체내 수분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 시 ‘20-20-20’ 규칙을 실천해도 좋습니다. 20분마다 20피트(약 6m) 떨어진 곳을 20초 동안 바라보는 겁니다. 가슴기를 틀어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인공눈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절성 알레르기성 결막염 또한 봄에 잘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공기 중 꽃가루나 황사, 먼지 유해 물질 등이 눈의 결막을 자극해 생깁니다. 계절성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걸리면 눈이 충혈되고 눈과 눈꺼풀 주변의 가려움증, 작열감, 눈부심, 눈물 흘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매경헬스 기자

국내 근시 환자 절반 이상,
20세 미만 소아·청소년
6개월 한 번씩 시력검사로
도수에 맞는 안경 착용
콘택트렌즈 위생 관리 필수
컬러렌즈는 눈 건강 해쳐

상위권 대학 무전공 선발 확대... 합격 꿀팁은



남윤곤 소장의
대입 완전정복



게티이미지뱅크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무전공 선발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주요 상위권 대학 대부분이 무전공을 운영하고 있고 2026학년도부터 연세대에서는 진리자유학부를 신설하여 262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 시행 등에 따라 진로가 더욱 강조되는 반면 무전공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입 준비 방법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전공의 유형과 장단점, 대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1은 전공 선택, 유형2는 단과대, 계열 내 선택

- [유형 1]
무전공 통합 모집 → 대학 내 모든 전공 선택 가능
- [유형 2]
공과대학 → 공과대학 내 학과 선택
인문대학 → 인문대학 내 학과 선택 가능

무전공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한 후(자유전공학부 등) 대학 내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등 제외) 내에서 자율 선택하는 '유형1'과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 모집 후 계열·단과대 내에서 자율 선택하거나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 전공을 선택하는 '유형2'가 있습니다.

무전공 선발 구조 예시

대학 입학 후 전공 선택, 다만 일부 계열은 선택 불가

무전공 입학은 대학 입학 후 교양과목 수강 등을 통해 다양한 탐색과 깊은 고민을 한 뒤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일부 제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전공이 선택 범위인 유형1도 사범대, 의약학, 계약학과 등은 지원할 수 없다는 조건을 대부분 대학이 적용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성균관대, 한양대 무전공(유형1) 전공 결정 관련 내용

대학	구분	내용
성균관대 자유전공계열	결정 시기	2학년(또는 3학년) 진입 시 희망과 선수과목 등 진입 요건 충족에 따라 모든 학부·학과 진입기회 1번 부여
	선택 제한	의약학계열, 사범대학, 융합과학계열 첨단학과, 정원의 계약학과, 건축학과(5년제) 제외
한양대 한양인터칼리지 학부	결정 시기	입학 후 두 번째 학기 말, 졸업 시까지 1번 변경 가능
	선택 제한	의과대학, 간호학과, 사범대학, 반도체 공학과, 예체능 계열

무전공 합격선 높은 편... 내신·수능 점수 미리 챙겨야

대학 입학 후 학문을 탐구한 뒤 전공을 선택하고 싶어 무전공을 목표로 대비한다면 먼저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에서 어떤 전형을 통해 무전공 인원을 가장 많이 선발하는지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서울대는 종합 전형과 정시로만 학생을 선발하고 고려대는 모든 전형에서 선발합니다.

상위권 대학 대부분에서 종합 전형과 정시 전형을 통해 가장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와 수능 학습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단 모집단위 지정 선발보다 전공 선택 자유도가 높아 합격선과 경쟁률이 높게 형성되는 편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026학년도 서울대, 고려대 무전공 '유형1' 전형별 선발 현황

대학	모집단위	정원	수시			정시
			교과	종합	논술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123	-	74	-	49
고려대	자유전공학부	95	18	26	15	36
한양대	한양인터칼리지학부(자연)	250	40	80	35	60
	한양인터칼리지학부(인문)			20	15	
성균관대	자유전공계열	280	20	120	30	110

경희대 일반학부 vs 자유/자율전공학부 학생부 교과 전형 평가요소 비교

선발 방법	일괄합산:	학생부 성적 70% + 교과 종합평가 30%
교과 종합평가 평가요소 비교	일반학과	학업역량 50% (학업성취도, 학업태도, 탐구력) 진로역량 50% (전공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자유/자율전공학부	학업역량 100% (학업성취도 30%, 학업태도 40%, 탐구력 30%)

또 무전공 모집단위와 일반학과 모집단위의 평가 요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희대의 일반학과(학부)와 자율전공학부 학생부교과전형의 교과 종합평가(30%)에서 일반학과는 학업역량 50%, 진로역량 50%를 반영하는데 자율전공학부는 학업역량을 100% 반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평가요소 등을 확인해 맞춤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

“일본 대학, 수포자인 너도 갈 수 있어”

日 도시샤大 강민



여러분은 해외 대학교 입학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나요? 해외 진학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도시샤대(同志社大) 상학부(商學部·한국의 상경대학)에서 무역·경영을 공부하는 강민 학생을 만나봤어요.

안녕하세요. 도시샤대 상학부에 다니는 4학년 강민입니다. 도시샤대는 1875년도에 창립된 전통 있는 학교로, 교토에 위치하고 있어요. 운동주 시인이 다녔던 학교로 유명하죠. 한국 친화적인 학교라 한국인 유학생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상학부는 저희 대학의 간판 학과라 불려요. 학부 내 전공으로는 무역·마케팅·회계·경영, 총 네 개가 있는데 학부생은 필수적으로 두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저는 무역과 경영 전공을 하고 있어요.



도시샤대학교 이마데가와 캠퍼스의 전경.

Q1. 일본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언제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본국 외무성에서 주관하는 ‘2017 쿨재팬(Cool Japan) 리포터’에 참가하면서였어요. 쿨재팬은 9박10일 동안 무료(주최 측에서 모든 비용 부담)로 일본에 보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고등학교 계시물에서 팸플릿을 보고 바로 지원해 합격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일본인과 부대껴 살았어요. 기억하기로는 당시 일정이 3일간 도쿄호텔에 숙박하고, 구마모토에서 4~5박 홈스테이를 하는 거였어요. 한 가구당 4~5명 정도 일본 현지 할머니 댁에서 머물게 됐는데,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 할머니·할아버지가 굉장히 잘해주셨거든요. 일본인의 정과 따뜻함을 느끼게 되면서 일본에 꼭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2. 일본에서 대학을 가고 싶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본어 공부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로 대학을 갈 수 있어 입시 스트레스가 없었다는 게 저에게 큰 장점이었죠.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지 않아도 돼서 그게 정말 좋았죠. 제가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사람)거든요(웃음). 대학별로 유학생 모집 요강이 다르지만 제가 진학한 학교와 학부의 경우 EJU(일본유학시험) 과목 중 일본어 과목과 종합 과목 2개, 토익, 면접, 지망이유서(서류) 이렇게 봤어요.

Q3. 지금의 학교와 학부를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원하는 전형(평가 항목에 수학 제외, 토익 포함 등)에서 학교 랭킹이 가장 높은 학교가 도시샤대학과 메이지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쿄 소재인 메이지대학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대도시인 서울과 도쿄의 다른 점을 개인적으로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여행으로 오사카와 교토를 방문하면서 교토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고즈넉하고 조용하면서 일본 분위기가 낭낭한 게 너무 좋아서 도시샤대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상학부를 선택한 이유는 취업을 위해서였어요. 도시샤대학의 간판 학과라서 일본 취업에 유리하니까요. 대학을 다니면서 무조건 한국에서 취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웃음). 일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외노자(외국인 노동자)는 외노자다.’ 실제로 한 교수님께서 하시 말씀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가 많이 보수적이어서 일본인과 비교해 볼 때 급여와 대우가 모두 다르대요.

Q4. 해외 대학 진학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해외에서 혼자 길게 살아보는 경험이 정말 좋죠. 확실히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식견도 넓어졌음을 많이 느껴요. 또 해외인 만큼 다양한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마음가짐이나 상대를 대하는 태도 등 공부 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배우는 게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과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게 아쉬워요. 친구들이랑 만나려고 해도 일본은 개강이 4월인 탓에 시간 맞추기도 힘들더라고요. 또 한국 취업을 생각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기업이 해외 대학보다는 한국 대학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Q5. 해외 진학을 준비하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학교와 병행하는 게 힘들었어요. 일본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일본어 학원으로 유명한 시사일본어학원을 다녔는데, 학교 대신 학원을 가기 위해 선생님과 많이 싸웠어요(웃음). 제 고등학교에는 일본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가 서너 명밖에 안 됐어요. 학교에서 해외 대학을 준비한 전례가 거의 없었으니까 학교 입장에서 조퇴를 시켜줘도 되나 싶었던 거죠.

담임선생님은 저 같은 학생을 보지 못해서 해외 입시를 위해서라고 해도 학원 때문에 학교를 조퇴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당시 저에게는 학원이 학교나 마찬가지로었는데도요. 그렇게 친구들과 계속 건의하고 항의하면서 오전까지만 학교 수업을 듣고 조퇴하는 걸 힘들게 허락받았어요.

Q6. 일본 대학 진학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 3가지는요?

첫째, 일본어를 충분히 마스터하고 오셔야 합니다. 유학 생활을 할 때 일본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어야 어려움이 없어요. 가능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의 지역 사투리도 공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는 일본과 일본인의 성향과 본인이 잘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민성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어요. 직접 살아보니 당황스러운 적이 꽤 있었습니. 예를 들면 철저한 ‘기브 앤드 테이크’가 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친구에게 생일선물로 사탕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 제 생일 때 그 친구가 똑같이 비슷한 금액대 사탕을 주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를 제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학교와 학부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고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학교 랭킹, 소재지, 학비 등 자신만의 대학 선정 기준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소윤 인턴기자

공인번호 : 기획재정부 제 2024-254호
등록번호 : 2012-0277호

50회 틴매경 TEST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



매일경제아카데미
*공식 인스타그램
@mknews_lab



*공식 유튜브
매테나

시험일
2025.05.24(토)

접수기간
2025.04.07(월)
~ 05.12(월)



자격명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틴매경TEST) | 자격의 종류 : 국가공인민간자격(A+,A,B) / 등록민간자격(C,D)
응시료 : 2만원 | 환불규정 : 정기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시 응시료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제외) 정기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발급기관 :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자 : 장대환, 장승준, 손현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매경미디어센터)
연락처 : 02-2000-2469 | 홈페이지 : <http://mktest.org> | 이메일 : mktest@mk.co.kr